

읽을거리	김겨울 『책의 말들』
파트너	조민영 님
발제자	이승준 님
시간표	[1] 19:40 오프닝 & 독후감 토크 [2] 20:10 북 토크 [3] 21:20 쉬는 시간 [4] 21:35 북 토크 [5] 23:00 마무리 발언 [6] 23:20 모임 끝!

공지사항

- 우리의 다름을 배려하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일을 하다 한 달에 한 번 모여 다른 생각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려면, 성장의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다른 생각을 전달할 때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을 충분히 담아주세요.
- 자기만의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읽고 생각하며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알아차리고, 연결된 상태에서 생각에 변화(확장)를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 생각을 공유할 때 비로소 생각이 정리되고, 사고의 깊이에 변화가 생긴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 꾸준히 연결된 상태로
모임이 끝난 후에도 카카오톡 채널과 뉴스레터 등을 통해 연결되어 소통해요.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북토크

모임에 들어가는 말

3월 마지막 금요일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은 어떠셨어요.
저는 지난 2번째 모임일까지, 2월 한 달을 안식월로 보내고 3월에 복귀했습니다. 3월은 봄이었는데 가장 외로운 봄이었습니다. 지독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라는 게 참, “밥 한번 먹어요”, “커피 한잔해요”처럼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인삿말과 비슷합니다.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잠을 못 자는 날이 하루이틀 지나면 왜 그리 힘들던지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방의 창문이 점점 벽으로 바뀌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성대에 결절이 생긴 줄 모르고 감기약만 먹으며 보낸 시간이 바보 같았고, “감기 조심하세요” 대신 “병원 가서 검사도 꼭 해 보세요”라는 인사를 해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대에 결절이 생긴 게 노래를 부르거나 고함을 쳐서가 아니라 기침을 많이 하는데 목을 계속 사용하면 가수가 아니더라도 결절이 쉽게 생길 수 있대네요!) 봄에 자주 듣던 노래가 있습니다. 2004년에 나온 이소라 6집의 '봄'. 담담한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봄에는 처음으로 슬프게 들렸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또 한 살이 늙네요"라는 가사도 있고요.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봄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설명했는데, 이제서야 그 말을 이해할 것 같다니요. 배워서 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한참 더 필요한가 봅니다.

리서치 하는데요

북토크

중요한 보고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준비한 것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듣기만 하고, 질문을 받아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기 싫다는 모순. 고독하고도 잔인한 날들이었습니다. AI가 나의 쓸모를 대체하기 전에 내가 AI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새로 나온 도구, 기술을 익히는 동안 제 책상에는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쓰인 약 봉투 안에 색깔도 어쩔 그리 예쁜지 보석 같은 알약이 놓여 있습니다. AI는 감기에 안 걸리게, 아니 감기에서 빨리 낫게 해줄 수는 없는 거구나.

혼자 독립해서 쓸 수 있는 큐브룸을 맡기 위해 새벽에 출근해서, 하루를 작은 방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편안해질 때쯤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면 해결이 어려운 일들 - 통화, 보고 - 이 밀려들었고, 나의 쓸모가 조용히 가라앉는 것(혹은 그런 착각들)이 보였습니다. 구멍이 나지 않았는데도 내려가는 풍선처럼. 그럴 때 잠깐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속으로 소리를 내어 읽었습니다. 속으로 낸 소리는 왜 바깥으로 울리지 않는 것인지요. 아, 글을 써야겠다. 다시 접어 둔 에세이를 써야겠다. 병든 인간만이 책을 읽는다는 말처럼, 3월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개방과 고립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삶(p.149)"이 이런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이 더 기다려졌습니다.

오늘 제가 발화량을 조절하며 마이크를 잡고 <리서치 하는데요>의 지적 대화를 함께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토크

Intro 다른 세계를 상상하고 공감하기 위하여

책을 시작할 때 저자는 '다른 세계를 상상하고 공감하기 위하여'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리서치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만드는 이는 사용자를 잘 안다고 가정하니까요. 김겨울의 『책의 말들』에는 100권의 책에서 모은 100개의 문장과 거기서 시작된 사유가 담겨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저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책은 책으로 건축되어 있다. 단순히 『책의 말들』이어서가 아니라 이 책 자체가 ‘책’이라는 주제로 중층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다. 말하자면 이 책은 ‘책에서 발췌한 ‘책에 관한 문장’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 p.11

더불어 저자는 “책에 관한 문장을 뽑았다고 해서 책 이야기만 하지는 않았다. 해당 문장에서 연상되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글을 썼으므로 이 책은 순전히 책에 관한 책이 아니라, 책을 읽어 온 나와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 관한 100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덧붙입니다.

<리서치 하는데요>에서 리서치만을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2023년에 다짐했던 마음을 이 책에서 찾은 기분입니다. 이 책은 2021년 1월에 지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2023년, 2026년에, 그리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책을 읽는 지루한 행위를 하고, 가끔 시간차를 두고 비슷한 생각을 하며 위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독후감을 읽으며 인상적이었던 것은, 같은 책을 읽었지만 각자 다른 문장에서 멈추고, 다른 기억을 꺼냈다는 점입니다. 종이책의 촉감에서 경험의 본질을 떠올린 사람. ‘비효율’이라는 단어에서 삶을 버티는 힘을 발견한 사람. 이 책의 장르 자체가 낯설어서 “이게 뭘소리야?”라며 솔직하게 당혹감을 고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독후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게 하고 싶다면 작가처럼 접근하면 어떨까. ‘책을 읽으세요’가 아닌 책을 오래 읽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유를 보여주면.” 이 관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것을 하세요’라고 설득하는 대신,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의 맥락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무언가를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요.

리서치 하는데요

북토크

Book Talk 1 | 듣고 있었던 건지,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책 읽기는 느린 행위다. 우리에게 멈춰 서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책 읽기란 얼마나 비효율적인 행위인가. 그러나 비효율이 곧 우리가 삶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임을 경청하는 이들은 안다.” — p.29

이 문장은 독후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입니다. ‘비효율’과 ‘경청’이 함께 놓여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독서를 경청이라 표현한 것에서 이 책의 제목이 “책의 글들”이 아닌 “책의 말들”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조급함을 느끼던 찰나, 저자가 만든 과속방지턱에 미끄러져도 보고, 앞구르기 뒷구르기도 해 보고, 문질러도 보면서 나만의 경청 방식을 찾아가고 싶다는 독후감이 있었습니다. 독서란 곧 경청이며, 경청이란 곧 집중하고 반응하고 되묻는 일이라는 것(p.29).

일에서도 비슷한 긴장이 있습니다.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리게 듣는 것’의 가치.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듣고 있었던 건지, 듣고 싶은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생각해 보면 효율을 추구하는 일상에서 ‘비효율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오히려 중요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며 어디에서 멈춰 섰나요.

-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오래 머물렀던 문장은 무엇인가요?
- 효율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순간이 있나요? 비효율적으로 머물렀던 시간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발견이나 깨달음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나요?
- 여러분만의 ‘경청’하는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북토크

Book Talk 2 | 손에 닿아야 비로소 읽히는 것들

“테크 기업들이 인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흡수해 버리려고 해도, 종이책 읽기는 그들이 완전히 손에 넣을 수 없는 몇 남지 않은 영역이다.” — p.67

독후감에서 가장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주제 중 하나는 종이책의 물성이었습니다. 인쇄된 종이의 촉감, 읽은 분량의 직관적 체감, 모퉁이에 적는 메모, 책장이 나를 대신 설명해주는 느낌. “물성으로 잡혀야 읽는 맛이 난다”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집들이에 가면 책장부터 보게 된다는 이야기가 여러 독후감에 등장했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을 통해 그 사람의 결, 관심사를 느낄 수 있다는 것. 비슷한 결의 동료 집에서 자기 책장인 줄 착각할 만큼 비슷한 책들을 보고 놀랐다는 경험. 좋아하는 책 세 권으로 MBTI보다 정확하게 사람을 해석하는 편집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효율이 비효율을, 편리함이 물성을 대체하는 시대입니다. 함께 따라온 것도 있습니다.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책장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을 설명해주는 물건이나 공간이 있을 겁니다. 손에 닿는 감각이 주는 안심 같은 것. 그것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그 감각을 채우고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 누군가를 설명해주는 물건이나 공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종이책과 전자책, 오프라인과 온라인. 같은 내용인데 경험이 달랐던 순간이 있나요?
- 페이지를 넘기는 손에 닿는 감각과 법전의 무게가 주는 묵직한 안도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북토크

Book Talk 3 | 누구도 완독할 수 없는 책을 쓰는 일

“누구나 죽을 때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자신만이 읽을 수 있는 외로운 책을 갖게 된다. 자신만이 읽었고 읽을 수 있으며 단 한 번 낭독되었고 앞으로 결코 완독될 일이 없는 책이다. 누구도 읽을 일 없는 이 책을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쓰는 태도를 우리는 품위라고 부른다.” — p.153

이 문장은 독후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인생을 115만 킬로미터의 필름에 비유한 노래를 떠올리며, 그 결말에서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까 자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필름이든 책이든, 결국 사람의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이고, 그 주인공은 나입니다.

기록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독후감을 관통합니다. “멍청한 짓을 저지른 후 그걸 수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을 쓰는 것이다”(p.77). 경험을 자기 방식으로 편집해 노트에 붙잡아두는 느낌이라는 표현이 좋았습니다. “뺨뺨이 채워진 노트는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오히려 세상을 가장 사랑했다는 증거”(p.77)라는 구절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회사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이력이 아닌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문화를 실천하면서도, 아직 그것을 찾지 못한 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고백도 인상 깊었습니다. 어쩌면 그 과정 자체가 나만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삶의 책’은 어떤 장르일까요.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그 과정 자체가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삶의 책’은 어떤 장르인가요?
- 일하며, 살아가며 기록하는 습관이 있나요? 그 기록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되돌아왔나요?

북토크

Book Talk 4 | 완전히 혼자서 아니라는 기분

"나는 자유를 느낀다. 행복을 느낀다. 고독을 느낀다. (중략) 적어도 이 집에서 고독은 행복의 전제 조건 같은 것이다. 나는 고독해서 행복을 느낀다. 고독함에도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다." — p.149

책을 '도피처' 혹은 '서바이벌 가이드'로 표현한 독후감이 여럿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도서관에 가면 끝없이 꽂혀 있는 책들이 위로가 됩니다. 변하지 않는 형태로 늘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하철에서 책이 소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의 방패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너무 몰입해 내릴 역을 두 번이나 지나쳤다고요.

고독에 대한 시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독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저자의 표현. 소파에 앉아 향초를 켜고, LP를 틀고, 책을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람. 혼자 조용히 지내는 사람에게 으레 건네는 "외롭지 않아?"라는 질문이 틀릴 수도 있겠다는 반성도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표현이 있습니다. "2026년의 내가 하는 생각을 1800년대의 누군가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면, 이 세상에 혼자이지만 완전히 혼자서 아니라는 기분이 든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작가가 명절에 떠난 제주처럼 도피처라 부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 장소나 행위. 그 고독을 즐기는 시간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던 경험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나눠 보면 합니다.

- 철저히 혼자서 보낸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 여러분의 도피처는 어디인가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나요?
- 시간과 공간을 넘어 누군가와 연결된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그것은 어떤 경험이었나요?

북토크

Closing

독후감을 읽으며 메모해 둔 문장입니다.

“책을 읽으며 남은 것은 특정 문장 몇 개라기보다 그 문장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책의 말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책의 문장보다, 그 문장을 읽으며 우리가 무언가를 떠올리고, 멈추고, 돌아보았던 시간이 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독후감에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논리보다 먼저 태도와 온도가 전해지고, 그 흐름 속에서 독자는 사고의 방향과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함께 형성하게 된다.” 사람을 이해하는 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논리보다 먼저 태도와 온도가 전해지는 순간. 그것이 경청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얇고 소중한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단은 이러합니다.

“그러니 드림렌즈로라도 시력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많이 읽을 것. 놀러 다닐 것. 좋고 슬픈 것을 볼 것. 사람의 눈물을 보고 뛰어다니는 개를 볼 것. 숨은 것과 숨으려 간 것을 볼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것.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들 하니깐. 그렇게 인생의 긴 할 일 목록에 쓰고 한참 동안 잊어버릴 항목을 꼼꼼히 덧붙이고, 30년쯤 후에 중간 점검으로 당당히 체크 표시를 할 날을 기다린다. 오늘은 드림렌즈를 끼지 않아도 되는 날이니 침대에 누워 『2084』를 읽다 잠들 것이다.” — p.105

숨은 것과 숨으려 간 것을 볼 것. 지난 시즌 모임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본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사실은 누군가 설계한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 보이도록 계획된 것을 보았다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건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는 게 싶지만, 무언가 노출이 되어야 기억이 되고, 기억이 되어야 팔리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살이에서 책으로 지어진 책을 읽으며 삶에 필요한 비효율을 기억하는 건, 금요일 저녁 강남역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고 취기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가끔은 낯을 테니까요. 오늘 모임이 그 연습의 한 페이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함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각자의 방식으로 더 잘 살기 위한 연습인지도.

북토크

책에서 함께 읽고 싶은 문장들

- “여행하는 자는 출발한 곳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돌아온 그곳은 결코 그 전과 같을 수 없으리.” — p.25
- “나는 귀하고 조용한 말을 들으러 간다. 삶의 벌어진 틈을 유명하는 이야기를 읽는다. (중략) 화면 속에서 내가 얻은 귀한 말들을 뚝 떼어 내 종이에 묶고 싶다.” — p.67
- “책은 내가 간신히 얻은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안정, 삶, 집 같은 단어이다.” — p.73
- “원지도 모르고 신나서 떠든 그 이야기들을 친절히 들어 준 어른들이 없었다면 나는 무척 위축되어 아마 책에 흥미를 잃었을지 모른다. 어린이들이 실컷 읽고 실컷 떠들도록 두어야 한다.” — p.89
- “책은 선물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인 듯하다. (중략) 그래서 대개 잘 아는 사람에게 맞춤형 책을 주거나, 선생님이 제자에게 주거나, 혹은 책이 어떤 취급을 받든 괜찮다고 생각할 때 책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 p.97
- “살아가는 일은 몸에 감히는 일과 다름없다. 몸이 곧 인간이며, 몸을 지켜워하는 것이 인간이고, 몸을 뛰어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므로.” — p.123
- “감사는 다이렉트로. 지면을 빌려 하는 것보다 전화로, 문자로, 마주 보고 하는 편이 나는 더 좋다. 네가 있어서 올해를 견딜수 있었어, 네 덕분에 끔찍한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 너와 만나고 시간을 보내게 되어 행복해, 나의 사소한 일상이 굴러갈 수 있는 건 네 덕분이야. 내 맘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같은 말로 농치는 거 별로다.” — p.207

마무리 토크

마무리 토크를 통해 오늘 대화를 되돌아 보아요.

1. 오늘 모임은 즐거우셨나요?
2. 오늘 모임에서 머리가 땡! 했던 순간이 있다면?
3. 다음 모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마무리 질문카드'를 사용하셔도 돼요!

- '마무리 질문카드'는 파트너 님(또는 진행자) 자리에 놓여있어요!
- '마무리 질문카드'를 한 장 뽑은 다음, 질문에 답해보아요.
- 답변이 끝나면 카드를 섞어서 오른쪽에 앉은 멤버에게 전달해주세요.

우리 다같이 단체 사진 찍어볼까요?

- 사진 촬영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모임방에 있는 삼각대로 다 함께 오늘을 기억할 사진 한 장 찍어보세요.



알림톡을 못 받았다면?
위 QR을 스캔해
접속해주세요!